

2022년 홍콩의 GDP 성장률 및 향후 전망

□ 홍콩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(속보치)은 3.5% 감소하여 2021년(+6.3%) 대비 역성장

○ 분기별(계절 조정 기준)로도 4분기 연속 (-)성장률을 기록



자료 : Bloomberg

□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홍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투자 및 상품수출 부진 등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
○ 정부지출이 8.1% 증가한 반면 투자(총고정자본형성)가 8.5% 감소하였고 상품수출은 13.9%* 감소(상품수입은 -13.1%)

* 특히 4분기에는 -24.8%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

홍콩 실질GDP 항목별 성장률

	2021		2022 (전년동기대비, %)			
	연간	연간	1/4	2/4	3/4	4/4
민간소비지출	5.6	-1.1	-5.8	-0.2	-0.4	1.7
정부소비지출	5.9	8.1	6.0	12.5	5.3	9.1
총고정자본형성	8.3	-8.5	-7.2	-1.2	-14.4	-11.2
상품수출	18.7	-13.9	-4.5	-8.5	-15.8	-24.8
상품수입	17.2	-13.1	-5.9	-6.0	-16.4	-22.8
서비스수출	3.4	-0.8	-3.0	2.4	-4.2	2.3
서비스수입	2.5	-1.4	-3.0	-1.5	-3.2	2.1

자료: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

작성자 : 김민규 차장

- 홍콩내 금리상승이 건설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제로코로나 정책여파에 따른 중국 본토와의 교역 축소,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대외 수출 감소 등에 주로 기인
- 한편 홍콩의 부동산 경기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홍콩의 주택가격은 2021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
 - 주택가격지수(Territory-Wide Price Index) 기준으로 이전 고점(2021.9월) 대비 22년중 약 16.5% 하락하였고 22.8월 이후에는 월간 하락률*이 2%를 상회
 - * 22.8월 - 2.20% → 9월 - 2.15% → 10월 - 2.64% → 11월 - 3.25% → 12월 - 2.03%
-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*, 실물투자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3%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
 - * 홍콩 GDP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에는 약 7% 수준
 -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택 가격 낙폭이 축소되고 부동산 거래도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언
 -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본격적 경기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